

방통위,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)는 2월 27일(화)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였다.

위촉된 위원은 법조계·학계·회계·소비자단체 전문가들로 ▲조정욱 변호사(법무법인 강호) ▲이윤남 변호사(법무법인 태평양) ▲장정애 교수(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) ▲나종연 교수(서울대 소비자학과) ▲이혜련 회계사(하늘 회계법인) ▲이정수 사무총장(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) 등 6명이며, 임기는 2년('24.2.27~'26.2.26)이다.

이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개정*에 따른 것이며, 위촉된 위원은 주어진 임기 동안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* 위원이 기존 1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확대 (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2항, 2023년 1월 공포, 7월 시행). 끝.

담당 부서	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팀	책임자	팀 장	박명진 (02-2110-1660)
		담당자	사무관	형경욱 (02-2110-1661)